



송필용 작 '땅의 역사' 중 일부(광주시립미술관 소장)

# 광주시립미술관 올 키워드 '민주·인권·평화'

미술관의 정체성은 소장품으로 결정된다. 미술관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다. 타 미술관과 차별화된 좋은 컬렉션을 수집하는 것은 미술관의 숙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올해 얼마나 관람객들을 불러모을 수 있는 작품들을 새로 소장했을까. 광주시립미술관이 올해 수집한 작품에는 미술관이 지향하고 있는 '민주·인권·평화'라는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민중미술 계열의 의미 있는 작품이 다수 포함됐다. 하지만 정작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을 수 있는 임팩트 있는 작품은 부족하다.

5일 광주시립미술관에 따르면 올해 모두 118점의 미술 작품을 새로 소장하게 됐다. 미술관은 모두 6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순수소장 작품 35점과 광주 아트페어를 통해 50점을 구입했다. 또 지역 작가와 작가들의 유족들로부터 33점을 기증받았다.

향후 광주·전남 미술역사의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는 지역 작가들의 대작을 위주로 구입했다는 것이 미술관의 설명이다. 특히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의 미술관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민중미술과 현실참여 계열 작품 구입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서양화가 송필용씨의 대작 '땅의 역사'(캔버스에 유채·131x1650cm·1989년)다. 100호 크기의 작품 9점이 연결된 이 작품은 동

## 2013 어떤 작품 모았나

지역작가 유족 기증 33점 등

6억원 들여 118점 구입

지역 민중운동 발자취

송필용 '땅의 역사' 눈길

관람객 사로잡는 작품 부족

민중미술 작품 활용방안 숙제

학농민혁명에서부터 광주 5·18민주화운동에 이르는 광주·전남지역 민주화의 발자취를 담고 있다.

갯벌 시리즈로 잘 알려진 서양화가 박석규씨의 민중미술 계열 작품인 '한국 80년대 역사'(캔버스에 유채·162.2x92cm·1989년)도 소장품 목록에 포함됐다. 이 작품은 광주 5·18민주화운동 현장을 초현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 밖에 도 신경호씨의 '넋이라도 있고 없고-광주로부터1'(캔버스에 유채·97x135cm·1981년), 한희원씨의 '구례 가는 길'(캔버스에 유채·127x294cm·1985년), 박광수씨의 '불타는 도시'(아크릴·194x131cm·1984년) 등 모두 9점의 민중미술 및 현실참여 계열 작품을 새로 구입했다.

조순후기 남종화의 대가였던 소치 허련의 '수목 팔군자'(장지에 수묵·8폭 병풍·1887년)와 허련의 직계인 허림의 '화조 10폭 병풍'(비단에 채색·10폭 병풍·1930년대 후반) 등 윤림산방 대표 작품들도 올해 컬렉션에 포함됐다.

고(故) 최연섭씨의 '아다다의 집'(캔버스에 유채·181.8x291cm·2001년)과 고(故) 최홍섭씨의 'korea fantasy'(캔버스에 유채·193.9x130.3cm·1976년) 등 지역 대표 작가들의 작품들도 다수 소장품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아트페어를 통해서도 무라카미 다카시의 '플라워

빌'(관화·70x70cm·2012년), 손장섭씨의 '정답'(캔버스에 유채·44.5x53cm·1989년), 윤우승씨의 'Lifish'(캔버스에 아크릴·61x108cm·2013년) 등 다양한 작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미술관 컬렉션의 격을 높이는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 등 미술관을 대표할만한 작품은 올해 수집품 목록에서 찾아 볼 수 없다. 또 아트페어를 통해 구입한 작품들도 정작 작품의 질보다는 갤러리별로 예산을 분배했다는 느낌을 준다. 정작 미술관에 걸기는 힘들고 나중에는 수장고 공간만 차지하는 '집'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민주인권평화도시의 미술관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구입하기 시작한 민중미술 계열 작품들의 활용방안도 미술관이 풀어야 할 숙제다. 어둡고 무거운 민중미술 계열 작품들의 특성상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힘든 작품들이 많기 때문이다.

광주시립미술관 관계자는 "호남 지역 미술의 토대가 되고, 또 이어나가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함으로써 지역 미술문화 진흥과 호남 미술의 데이터베이스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미술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며 "또 아트페어를 통해 구입한 작품들은 향후 아트뱅크 등을 통해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춤으로 읽는 동화

광주무용협회 청소년 춤 축제

8일 문예회관·무용인 시상식도



서영 나인숙 한명선

광주무용협회(회장 김미숙)가 주최하는 제8회 빛고을 청소년 춤 축제가 오는 8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지역의 8개 무용단이 동화의 내용을 각기 독특한 스타일로 해석해 선보인다.

1장 '백설공주의 탄생'은 김미숙 하나 무용단이, 2장 '마술의 거울'은 서영무용단이 무대에 올리며 3장 '여왕의 분노'는 권소영 무용단이 공연한다. 그밖에 '사냥꾼과 백설공주', '숲속 동물들', '일곱난쟁이를 만난 백설공주', '백설공주와 사과'를 문현화M댄스 무용단, 김성희 kdc 무용단, 예원 발레단, 성지현 Blackj 무용단, 광주로얄발레단 등이 선보인다.

송년 행사를 겸한 이날 행사에서는 무용인 시상식도 열린다.

박금자상은 나인숙(광주무용협회 부회장·광주중앙여고 교사)씨가, 광주무용인상은 올해 전국무용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서영무용단의 서영씨가 받는다. 또 신인상은 나빌레라 예술단 대표 한명선(광주시립극단 수석단원)씨에게 돌아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해설이 있는 비바 브라스

도레미 초청연주회 전담대 예향홀



제5회 도레미 초청연주회 '해설과 영상이 있는 비바 브라스'가 7일 오전 11시 전남대 예술대 예향홀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는 김대욱·김해정(트럼펫), 김필배(호른), 김재용(트럼본), 백경민(튜바), 신수경(피아노) 등이 출연한다.

연주 레퍼토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 바흐의 'Jesu, joy of mans desiring'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

도레미-미래의 꿈나무를 위한 음악교육 프로젝트는 전남대학교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아동 정서 발달 지원 서비스다. 문의 062-530-01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베니스 감독, 또 광주비엔날레 출신

지오니 이어 오쿠이 선정

광주비엔날레 총감독들이 연이어 베니스비엔날레 총감독이 됐다.

5일 광주비엔날레재단에 따르면 2008광주비엔날레 총감독인 오쿠이 엔위저(Okwui Enwezor)가 오는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총감독에 선정됐다. 앞서 지난 2010광주비엔날레 총감독을 지낸 마시밀리아노 지오니(Massimiliano Gioni)도 올해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총감독을 맡았다.

오쿠이 엔위저는 그동안 전시 기획뿐 아니라 저술가, 학자 등으로 국제 미술계에서 입지를 쌓아왔다. 그는 요하네스버그비엔날레(1996~1998)를 시작으로 카셀도큐멘타11(1998~2002)과 파리 트리엔날레(2012) 등의 총감독을 역임했다.

특히 오쿠이 엔위저는 2008광주비엔날레 당시 '연례보고'라는 타이틀로 주제 중심의 기획을 맡아



해 1년간 전 세계의 의미 있는 전시를 한 자리에 모으면서 국내·외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특별 전시장으로 쇠락해가는 광주의 재래시장인 대인시장을 활용하면서 예술을 통한 도심 재생 성공 사례의 한 획을 긋기도 했다.

그는 현재 하우스 데이 콘스트(Munich's Haus der Kunst)의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오쿠이 엔위저는 "베니스비엔날레는 예술, 정치, 기술, 경제 등을 총망라하면서 동시대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 자리를 지켜왔다"며 "베니스비엔날레 자체만으로 전시를 기획하는 데 큰 영감을 제공한다"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명사들 詩로 통하다

7일 문순대 시집 발간 기념 시낭송회

작가 문순대(72·생오지문화촌 대표)의 첫 시집 '생오지에 누워' (책만드는 집) 발간을 계기로 명사들이 함께 하는 시낭송회 '詩로 통하다'가 열린다. 7일 오후 2시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시청각실.

1부는 황중년 전라도닷컴 대표의 사회로 문병란 시인이 '시 쓰는 소설가'를 말하고 가야금 연주자 선영숙씨가 문 작가의 시 '인연'에 곡을 붙인 음악을 연주한다.

이어 성진기 전 한국철학회 회장, 황영성 광주시립미술관장, 최양남 광주 YWCA회장, 문석남 전 새한대(대불대)총장, 문영태 문치과원장이 '사랑의 온도' 등을 낭송한다.

시집 '생오지에 누워'에 대한 토크도 이어진다. 송수련, 허영만, 김준태 시인이 문 작가와의 인연을 매개로 지나온 삶과 문학을 이야기한다.



2부는 작품집 '창작촌' 출간 의미에 대해 전남대 한려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수록작을 낭송하며 시상식 전 전남도립극안단장과 흥영씨의 아쟁산조 등 축하공연도 이어진다.

한편 '생오지에 누워'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 연가를 담은 80여 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문 작가는 광주고 재학시절 고 이상부 시인과 함께 김현승 시인에게 시를 배웠으며 65년 '현대문학'에 시 '천재들이' 추천을 받을 만큼 시에 대한 남다른 재능이 있다. 문 작가는 "지금까지는 시처럼 소설을 써왔지만, 이제부터는 시를 소설처럼 쓰겠다"며 "눈발에 곡식 대신 꽃씨를 뿌리겠다"는 말로 시 창작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의 062-613-5337~8.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문화유적에 대한 고찰

광주박물관 9일 최광식 전 장관 강연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오는 9일 오후 3~5시 박물관 소강당에서 최광식(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청, 명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최 전 장관은 '실크로드와 한국문화'를 주제로 신라 승려 혜초가 실크로드를 따라 불교 성지를 순례하고 쓴 '왕오천축국전'과 북방 스키타이제 영향을 받은 신라의 '황남대총', 중앙아시아와의 문화교류가 확인되는 고구려 벽화 등 문화유적을 소개한다.

고려대를 졸업한 최 전 장관은 국립중앙박물관장, 문화재청장 등을 역임했다. 강연은 무료로 당일 신청순 100명이다. 홈페이지(http://gwangju.museum.go.kr), 문의 062-570-701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2013년 송년 디너쇼

## 남진

**일시** | 2013년 12월 12일(목) 18:30

**장소** |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 볼룸

165,000(세금포함)

예약문의 | 062)228-4711~2

**18:30 입장**

**19:00 식사**

**20:00 공연**

**21:30 퇴장**